



## 노력하는 천재 이정후의 위대한 도전

### (父子)

# 초유의 '부자 타격왕' MVP 가업도 이을까

이정후 2022시즌 주요 성적 (4월 오전까지)

부분	기록	순위
타율	0.351	1
안타	191개	1
출루	237개	공동 5
타점	113개	1
득점	84	6
출루율	0.422	1
장타율	0.581	1
OPS (출루율+장타율)	1.003	1
WAR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	9.16	1
wRC+ (조정 득점생산력)	184.4	1
RAA (특점 생산)	74.9	1
ISO (순장타율)	0.230	3
득점권 타율	0.396	2
결승타	15개	2

\*WAR은 스탯티즈 기준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가 지난달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SSG 랜더스전 8회초 2사 만루에서 우익수 알 안타를 친 뒤 1루를 향해 달리고 있다. 아래 사진은 1994년 MVP 이종범. 연합뉴스-한국일보 DB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타격 천재' 이정후(24)는 지난해 커리어 하이인 0.360(464타수 167안타)의 타율을 기록했다. 시즌 막판까지 강백호(KT 위즈-0.347), 전준우(롯데 자이언츠-0.348)와 치열한 다툼을 벌인 끝에 타격왕을 차지했다. 1994년 타격왕을 거머쥔 아버지 이종범(LG 트윈스 2군 감독과 함께 세계 최초로 '부자(父子) 타격왕'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이정후는 타고난 천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받은 맞고 받은 틀린 얘기다. 타고난 재능에 더해준 각고의 노력과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보통 선수들은 성적이 좋았을 때 타격 자세와 메카니즘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정후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더 나은 타격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올 시즌 초 분지와 인터넷에서 "타격감이 떨어졌다고 예전 타격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는다. 그때의 저와 올해의 저는 다르다. 몸 상태, 근육량, 타격 기술 등이 매년 달라진다"며 "강한 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맞춰 타격 자세와 스윙 메카니즘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력하는 천재' 이정후는 올해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정교한 타격에 뛰어난 선구안과 장타력까지 장착해 '완성형 타자'로 거듭났

"몸 상태 매년 달라 메카니즘 변화" 더 나은 타격 위해 끊임없이 연구 올 시즌 선구안·장타력까지 더해 2010년 '이대호 7관왕' 이후 5관왕엔 28년 전 아버지 이종범과 또 같은 길



다. 그는 3일 오전까지 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1(544타수 191안타), 23루런, 113타점, 84득점, 4도루, 출루율 0.422, 장타율 0.581, OPS(출루율+장타율) 1.003을 기록하고 있다. 타율,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 OPS 등 타격 6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데뷔 후 처음으로 20루런을 넘겼다. 타점도 커리어 하이다. 박용택(2012~2018년), 최형우(2013~2018년), 손아섭(2016~2021년)에 이어 역대 4번째 6시즌 연속 150안타도 달성했다.

이정후는 '타격 5관왕'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야구 역사상 타격 5관왕을 차지한 선수는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뿐이다. 그는 2010년 도루를 제외한 타격 7개 부문 1위를 휩쓸었다.

역대 4번째 2시즌 연속 타율 1위에 도전한다. 타격왕 2연패 이상은 리그 역사상 장효조(1985~1987년)와 이정훈(1991~1992년), 이대호(2010~2011년)만 이룬 대업이다. 이정후는 9월에 타율 0.418(91타수 38안타)로 몰아치기 능력을 보여주며 타격왕을 점조준하고 있다. 이정후는 자세히 뜯어보면 더 훌륭한 타자다. 세부 성적도 '역대급'이다.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스탯티즈 기준)을 보면 이정후가 올해 얼마나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올해 이정후의 WAR은 9.16으

로 압도적인 1위다. 이정후보다 한 시즌 WAR가 높았던 야수는 이종범(해태 타이거즈-1994년 11.77, 1997년 9.70, 1996년 9.52)과 에릭 테임즈(NC 다이노스-2015년 10.71), 심정수(현대 유니콘스-2003년 10.19) 등 3명뿐이다. 이종범은 1994년 단일 시즌 타율 0.393(와 19루런 84도루를 기록했다. 테임즈(36)는 2015년 프로야구 최초로 40루런-40도루를 달성했고, 심정수(47)는 2003년 53개의 아치를 그렸다.

또 이정후는 wRC+(조정 득점 생산력) 1위(184.5), RAA(특점 생산) 1위(75개)를 기록 중이다. ISO(순장타율)도 0.230으로 3위에 올라 있다. 득점권 타율(0.396)과 결승타(15개)는 2위다.

이정후는 가장 유력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다. 김광현(34-SSG 랜더스), 호세 피델라(33-삼성 라이온즈)와 치열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후가 타격 5관왕을 차지한다면, 생애 첫 KBO MVP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이정후가 MVP에 오르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부자 MVP'가 탄생한다. 이종범 감독은 1994년 당시 24세의 나이로 타격·최다안타·도루·출루율·득점 5관왕에 오르며 정규리그 MVP를 거머쥐었다. 28년 전 아버지와 같은 올해 24세인 이정후가 MVP 가업(家業)을 이으려 한다. 이정후 기자 i2028@sporbiz.co.kr

다편딩 캠프 김수지 하이트진로 출신 3주 연속 우승·개인 첫 타이틀 도전



김수지(26·사진)가 생애 첫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인 타이틀 획득에 도전한다.

김수지는 앞서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9월 23~25일)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9월 29~10월 2일)을 모두 제패하면서 단숨에 주요 타이틀 부문 선두권에 올랐다.

상금 부문에서는 1위(10억4858만9714원) 박민지(24)에 이어 2위(9억2270만5787원)에 올라 있다. 최대 상금(2억7000만 원)이 걸렸던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게 컸다. 박민지와는 불과 약 1억2000만 원 차이다. 우승을 추가하는 등 향후 성적에 따라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상황이다.

대상 포인트와 평균최저타수 부문 1위도 가 시킨다. 김수지는 대상 포인트 543점으로 1위(579점) 유해란(21)에 이어 2위에 포진해 있다. 평균최저타수 부문에서도 2위(70.3768타)에 랭크돼 있다. 1위(70.3425타)는 박지영(26)이다.

김수지는 6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GC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다편딩 챔피언 자격으로 3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가을 대회에서 유독 강해 '가을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는 "남은 대회도 가을에 열리니까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3주 연속 우승에도 도전해보겠다. 특히 대상 포인트 부문은 1위를 한 번 노려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올바른 NEWS · 정확한 NEWS · 새로운 NEWS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신문' 한스경제

